

양형모의 아이 러브 스테이지 | 뮤지컬 '원스'



‘원스’는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뮤지컬이다. 바이올린, 만돌린, 베조, 기타, 하모니카 등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는 ‘언플러그드 음악’의 힘이다. ‘원스’의 남녀 주인공인 이창혁(왼쪽)과 전미도.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

나무향 같은 순수한 멜로디에 ‘힐링’

배우가 직접 연주 ‘액터 뮤지션 뮤지컬’
전미도의 독특한 억양 연기 깨알 재미
‘폴링 슬로우리’ 등 익숙한 음악들 가득
공연 시작 20분 전 배우들 라이브 공연

보는 내내 생각했다. “이건, 언플러그드 뮤지컬이로군.”

전기코드를 뺀 듯한 뮤지컬. 찌릿찌릿한 전기가 만들어내는 황홀함, 공기를 찢어발길 듯한 광폭한 음량을 포기한 대신 은은한 나무냄새, 나일론 줄의 달콤함, 배우들의 포명한 대사와 발구름 소리를 연었다.

동명의 해외 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무비컬’이지만 영화를 그대로 무대 위에 올려놓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뮤지컬 원스는 주인공 공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바이올린, 만돌린, 베조,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드럼 등을 연주한다. 배우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연기하는 ‘액터 뮤지션 뮤지컬’인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보석 같은 배우들을

잔뜩 데려다 놓았는지 제작사 신시컴퍼니측에 기립박수라도 보내고 싶어진다.

원스의 주인공은 두 명이다. 작가가 이름을 짓기 귀찮았는지 남자는 ‘가이(이창희 분)’, 여자는 ‘겔(전미도 분)’.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배경으로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하려는 청소기 수리공 ‘가이’와 그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체코 출신 ‘겔’의 이야기를 다룬다. ‘겔’ 역의 전미도는 그야말로 대단한 연기를 보여준다. 원래 차돌처럼 단단한 연기력을 지닌 배우지만 원스에서는 ‘과연 전미도!’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주억거리게 된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겔’의 독특한 영어억양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 뿐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린다. 실은 원스의 강렬한 재미 중 하나는 ‘겔’의 독특한 말투가 자아내는 웃음과 이국적인 분위기다. 전미도는 ‘겔’의 말투를 중국동포 억양과 우리나라 사투리를 버무린 ‘전미도식 체코 억양’으로 재창조했다. 따라하고 싶어질 정도로 귀에 착착 감긴다. 영화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었던

깨알 같은 재미다.

나무향처럼 순수한 음악들이 넘치는 뮤지컬이다. ‘폴링 슬로우리(Falling slowly)’와 ‘이프 유 원트 미(if you want me)’ 같은 곡들은 원스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멜로디다. ‘가이’가 쓴 멜로디를 ‘겔’이 혼자 흥얼거려다가 가사를 붙여가며 점차 노래(이프 유 원트 미)로 완성해 가는 장면은 참 근사하다. ‘폴링 슬로우리’는 ‘가이’와 ‘겔’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서로를 떠올리며 노래하는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한다. 애잔하기 그지없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지옥도 마다하지 않겠소”와 같은 사랑은 원스에 없다. 대신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돌아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실은 그래서 더 와 닿고, 더 아프고, 쓰리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공연장에는 되도록 일찍 도착할 것을 권한다. 편의점이 나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20분전에는 입장할 것. 정식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들의 흥겨운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우버, 정부에 ‘기사 등록제’ 제안

(차량공유 택시서비스)

불법 논란에 휩싸인 차량공유 택시서비스 기업 ‘우버’가 한국 서비스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불법논란에 대해서 정부에 ‘등록제’를 통한 제도권 수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와의 갈등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없어 불씨를 남겼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4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버는 전향적 규제를 받긴다”며 “한국 정부에 우버 기사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2013년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끊임없는 논란을 낳았다. 법위반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으며,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을 내 건 서울시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지냈던 플루프 부사장이 들고 온 카드가 문제의 해법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사 정부등록제 제안

플루프 부사장이 이날 제안한 해법의 핵심은 ‘정부등록제’. 정부가 우버 기사들에게 일정한 상용면허를 내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플루프 부사장은 “서울시와 한국정부, 국회와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택시기사와 소비자, 한국경제 모두를 위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며 등록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사들은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전과와 음주운전 조회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기사 뿐 아니라 승객용 보험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

플루프 부사장, 불법 논란에 해법 제시

“택시와 마찰? 뉴욕선 운송파이 커졌다”



불법 논란으로 서울시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차량공유 택시서비스 기업 ‘우버’가 한국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기사등록제’를 제안하고 있는 우버의 데이비드 플루프 정책·전략 담당 수석부사장.

사진제공 | 우버코리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소득증대 및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와 같은 미래에 등장할 만한 회사들의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세계 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와 마찰은 숙제

하지만 아직 남아야 할 산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택시업계와의 마찰이다. 실제로 이날 호텔 앞에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플루프 부사장은 이에 대해 “택시업계와 제로섬이라든 하는

그렇지 않다”며 “샌프란시스코에서나 택시업계가 유명한 런던과 뉴욕에선 오히려 운송 파이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또 택시기사로 일한 뒤 일정 시간 우버기사로 일하는 등 기사들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택시업계와 기사는 별개 문제라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플루프 부사장은 “택시업계가 많은 부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사들의 벌금을 대신 내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기사를 편에 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며 대답 의사를 비쳤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 @kimyke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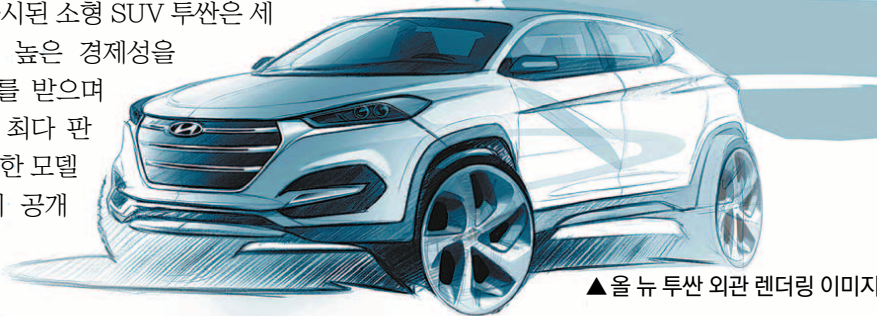
현대차 ‘3세대 투싼’ 외관 렌더링 공개

강인한 실루엣·날렵한 라인 돋보이는 외관
내달 3일 제네바 모터쇼서 세계 최초 공개

현대차가 3월 출시 예정인 투싼 후속 모델의 차명을 ‘올 뉴 투싼(프로젝트명 TL)’으로 결정하고 외관 렌더링을 3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외관 렌더링 이미지를 통해 본 올 뉴 투싼은 대형 해사고날 그릴을 중심으로 헤드램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면부가 더욱 강조됐다. 또 강인한 실루엣과 날렵한 라인을 통해 스포티한 측면부 이미지를 강조해 보다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2004년 첫 출시된 소형 SUV 투싼은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경제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대차 글로벌 최다 판매 SUV에 등극한 모델이다. 렌더링이 공개된 올 뉴 투싼은 2009년 이



▲올 뉴 투싼 외관 렌더링 이미지

홍삼농축액, 성분 비슷한데 가격은 ‘최대 7배’ 차이

대동고려삼 ‘천지양 고려홍삼정’ 가장 저렴
인삼공사 ‘홍삼정 마스터클래스’ 가장 비싸

홍삼농축액 제품들의 가격이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홍삼 주요성분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홍삼농축액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g당 3만7083원에서 27만5500원으로 가격차가 최대 7.4배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된 제품 중 100g당 가격에서 대동고려삼의 ‘천지양 고려홍삼정골드’가 3만708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삼정 마스터클래스’가 27만5500원으로 가장 비쌌다. 동진제약식품사업부의 ‘고려홍삼정 100’은 100g당 가격이 3만1250원으로 가장 싼지만, 표시량 대비 실제 성분 함량이 64%로 기준치(표시량의 80% 이상)에 못 미쳐 비교대상에서 제외

후 6년만에 선보이는 3세대 모델로 현대차의 최첨단 주행안전 사양과 프리미엄급 편의사양이 대거 탑재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 뉴 투싼은 SUV만의 대담한 이미지에 모던하고 세련된 도심형 스타일을 완성했다”며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통해 다이나믹하게 강화된 주행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형 SUV의 주요 타깃 층인 20~30대 젊은 수요층을 공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 뉴 투싼은 3월3일 개막하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됐다. 나머지 19개 제품은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적합했다.

사포닌을 뜻하는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서 분리된 배당체를 말한다.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일일섭취량으로 환산한 결과 12.30~37.59mg으로 전 제품 모두 홍삼의 기능성 요건에 충족했다. 홍삼의 기능성인 면역력 증진, 피로·기억력 개선, 항산화 효과를 얻으려면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이 3~80mg이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홍삼의 여러 유효성분 중 일부로 이를 통해 제품 전체의 품질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유명 브랜드만 찾기보다는 가격과 섭취용이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혁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 @ajaplo

유레일, 1개월 글로벌 연속패스 구입하면 ‘5일 더’

3월 말까지 조기 예약판매 프로모션

유레일 그룹은 2월부터 3월말까지 15일, 21일, 1개월 글로벌 연속패스를 구입한 여행객에게 기차 탑승일을 최소 2일~최대 5일간 추가 이용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15일짜리 글로벌 연속패스를 구입할 경우 실제로는 17일 동안 기차를 탑승할 수 있고 21일짜리 연속패스로는 24일간 탈 수 있다. 한 달짜리 글로벌 연속패스는 추가로 기차여행을 5일 더 즐길 수 있게 된다.

유레일의 조기 예약판매 프로모션은 1등석과 2등석, 학생(유스)요금, 성인요금, 어린이요금 및 1장의 패스로 2인 이상이 여행할 수 있는 셰이버 요금 모두에 적용된다. 유레일패스의 일반적인 규정과 마찬가지로 패스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여행을 떠나 시작일로부터 2개월 안에 여행을 마쳐야한다.

현재 유레일패스는 방문국 수에 따라 글로벌 패스(28개국), 셀렉트패스(4개국), 리저널패스(2개국), 윈 컨트리패스(1개국) 등 4종류가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baukid

한화리조트, 설 맞이 이벤트

대천 파로스, 레이저 미술 등 무료 공연

한화리조트가 설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화리조트 대천 파로스에서는 19일부터 3일간 오후 8시부터 레이저 미술(사진)과 샌드 애니메이션, 중국 전통 변경 등의 공연을 무료로 진행한다. 19일 오전 10시부터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기차기, 윷놀이, 연만들기 등의 민속놀이를 실시한다. 성적에 따라 대천 특산품인 머드종합세트와 대천김 등의 상품을 증정한다. 설 연휴 대천 트릭아트 ‘박물관은 살아있다’와



사우나 패키지는 45% 할인한다.

한화리조트 경주도 19일 오후 4시부터 고무신 던지기, 우유 빨리 마시기, 커피 제기차기, 보물찾기, 빙고 게임 등 가족 참여 게임을 예쁜 로비에서 진행한다. 18일부터 20일까지 한복을 입은 고객은 본인 외 동반자 한 명까지 스프링클러 사우나 50%, 아사달 레스토랑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하이트진로 ‘맥스生’ 판매량 28.2% 성장



로 측의 분석.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맥스生的 지난해 판매량은 940만 상자(1상자=500ml×

국내 최초 100% 보리맥주 ‘맥스’의 크림생맥주 ‘맥스生(사진)’의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맥주 본연의 맛을 즐기는 소비자들 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이트진

20병)로 2013년(733만 상자)보다 28.2% 성장했다. 맥스生的의 인기는 연도별 판매추이에서도 확인된다. 2007년 10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없었다. 맥스 전체 판매량이 주춤했던 2011~2013년에도 맥스生은 7~9%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국내 율 물트 맥주시장은 맥주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생맥주가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맛있는 크림 생맥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 | 김재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